

# 일본 방위간화회 대표단 방한

## 양국 기술협력 및 유대 강화 계기



이날 배일성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간 안보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한반도 및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방산분야에서의 실질적 기술 교류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지만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 한·일

양국간 우호증진과 기술협력을 위해 1987년 부터 매년 방진회와 상호 방문하고 있는 일본 방위간화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일본 방위간화회는 국방의식을 고양하고, 국민과 자위대간 상호 이해를 깊게 하여 자위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1965년 경제 5단체(경제단체연합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공업구락부)를 발기인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064개사의 법인회원과 200여명의 개인회원을 갖고 방위문제에 관한 강연회, 간담회, 해외 산업 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방산업체 대표와 일본 방문단 일행은 9월 19일 오찬을 함께 하며 상호 우의를 다졌다.

또한 오오야마 기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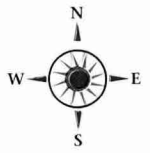
일본방문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방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軍과 방위산업을 보고 듣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설명하고 “판문점과 전쟁기념관, 통일전망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 日本 防衛懇話會 韓國 訪問團

9. 19

韓國 防衛 産業 振興 會





#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학술회의 개최

## 21세기 정보화 시대 국방경영 발전방향 모색

**국방** 대학교(총장 김희상, 육군 중장)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다각적인 변화에 따른 국방경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대학원 학술회의를 지난 8월 31일 개최하였다.

「정보기술혁명시대의 미래 국방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김덕영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김화수 국방대 교수가 「정보기술 발전과 미래 국방정보체계 건설·관리」를, 황동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국방획득 및 방산정책과 국방경영혁신」을 각각 발표했다.

김화수 교수는 발표에서 국방 부문의 핵심 정보기술로서 인공지능·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사이버테러·나노 테크놀로지·병렬처리·객체지향 기술 등을 소개하고, 고가용성·고안정성·고신뢰성·대용량 정보처리 등 국방정보체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인해 민수부문에 비해 국방정보체계의 건설 및 운영·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사이버 시대의 미래 지휘관과 참모는 최소한의 정보 기술 숙지와 함께 정보통신 전문인력에 대한

000 관리대학원 학술세미나  
情報技術 革命時代의 未來 國防經營  
2000. 8. 31 國防大學校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동준 박사는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첨단 군사 기술 및 방위산업 기반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이는 안보를 위한 필수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박사는 “주요 국방획득사업에서의 정책 결정을 개별적인 무기체계 위주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육군, 지휘통솔 발전 심포지엄 개최

## 21세기 정보화 과학화 시대에 적합한 지휘통솔 방안 모색

**육군** (www.army.go.kr)은 9월 7일, 전쟁기념관 전 회관에서 김형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현역장병 대표자(이등병~장군)와 역대 참모총장 및 예비역 장병, 학계·언론계·산업계·연구기관의 리더십 전문가 등 군·내외 인사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지휘

통솔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21세기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적합한 육군의 지휘통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학계, 언론계, 산업계, 연구기관 리더십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한국인성교육협회·

한국국방연구원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김형보 육군참모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명 동아일보 사장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리더쉽」이란 주제로 기조연설 후, 홍두승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이준 예비역 육군 대장의 「21세기 지휘통솔 환경과 군지휘통솔 발전방향」, 임필락 박사의 「육군 가치관 정립과 행동화 방안」, 김종량 한양대 총장이 「디지털 시대의 지휘통솔자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삼성전자 김석우 박사, 김종래 조선일보 편집위원, 민병돈 예비역 중장, 배기복 국민대 교수, 서경석 예비역 중장, 양승봉 한국인성교육협회 이사장, 최용학 평택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육군은 21세기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적합한 「한국적 지휘통솔」에 대한 연구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된 지휘통솔」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적 지휘통솔

21」종합발전계획을 추진중이다.

한편, 육군은 「한국적 지휘통솔 21」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9월 말까지 육군 장병의 사고와 행동의 규범이 될 「육군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장병들에게 신념화·체득화시키기 위한 「육군 장병 인성계발 21」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개발 교육하며, 내년 4월까지의 한국적인 지휘통솔 교리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하여 「신 지휘통솔 교범」을 발간, 이를 학교기관에서 교육하고 전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군은 명실공히 「육군 가치관」에 바탕을 둔 한국적 지휘통솔 교리와 기법으로 육군의 지휘통솔 체계에 혁신을 가져오게 되고, 야전에서서의 실용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VISION 2010」에 부합되는 지휘통솔자를 계발함으로써, 강력한 선진육군을 육성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니고 있다.

##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설명회 개최

### 선진국의 기술 보호 장벽 대처에 기여

#### 국방

부는 8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5회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

다.

본 행사는 그 동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민수화로 추진(Spin-off)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민수이전 설명회를 통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을 대처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 선정된 기술은 독창성, 파급효과 및 시장성 등을 고려, 「샌드위치형 압전 세라믹 트랜스듀스 특성해석 S/W」 등 21개 기술/제품이 발표되었고, 이들 기술/제품은 전시, 시연 및 발표 등의 형태로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로 국방과학기술이 연구소 및 일반업체

에 이전되어 민수 기술과 접목, 실용화 촉진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육군에서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 「사단/군단급 훈련용 워-게임 개발기술(창조 21)」은 상용 워-게임 S/W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관련 벤처기업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94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전산지도 정보 및 도시용 S/W」 등 17개 기술을 56개 업체 및 기관에 이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민수업체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 민수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을 확대하여 민·군겸용 기술교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국방홍보원 출범

## 명칭변경과 함께 대군 대국민 홍보 병행



**국방** 전문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원장 김종구)은 9월 8일 오전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헌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일섭 국방부 차관, 김종구 국방홍보원장과 관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군영화 등을 제작, 운영하고 있는 국방전문 홍보기관으로 지난 8월 28일 기존의 '국군홍보관리소'란 명칭을 국방홍보원으로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국방홍보원은 명칭변경과 더불어 그 동안 對군 일변도의 홍보활동에서 對군·對국민 병행홍보 체제로 전환,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각종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정보화·

외국어 등 국민교육적 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장병들의 자질 함양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 국방홍보 영역을 넓히는 등 첨단 매체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최고 수준의 국방전문 홍보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일섭 국방부 차관은 "국방홍보원은 국방홍보의 총본산으로 對국민 국방홍보 활동을 강화해 민과 군을 하나로 잇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국방홍보원장은 "국군홍보관리소는 금년 초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발전적 위상 전환을 이루었고 아울러 그 동안의 對군 위주 홍보에서 탈피해 對군·對국민 병행홍보로 홍보활동 영역을 넓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홍보환경 하에서 평화를 위한 안보태세를 공고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전문홍보기관으로 도약

하기 위하여 2000년도 8월 28일부로 기관명칭을 '국방홍보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국방홍보원은 앞으로 보다 새롭고 진취적인 홍보활동으로 운영중인 각종 매체의 수준과 전파력을 높여 군과 국가 발전에 더 큰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